
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	<b>보 도 자 료</b>		 <p>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</p>
	배포일시	2016. 2. 26(금) 총2매 (본문2)	
	·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서정호, 사무관 민경철, 사무관 이재민 ☎(044) 201-3366, 3365		
보 도 일 시	2016년 2월 2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28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아파트 옥상 출입문,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화...위급 상황 시 옥상으로 대피

-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의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.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.
  - 또한,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안이 이달 29(월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
    - 방법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.

- 이는 그동안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, 소방당국에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개정된 것이다.



②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포함

○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'지능형전력망 기술'을 포함하였다.

-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,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.
-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,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.

□ 이번 개정규정은 2.29(월)부터 시행하고, 시행 후 최초로 사업 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.

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응징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찰 사무관(☎ 044-201-3366), 이재민 사무관(☎ 044-201-33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